

나는 생활하는가, 생존하는가?

2016.07.25. | 새사연_노동연구팀 | smj@saesayon.org

청년에게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라고 으박지르지 말자. 투자를 하려면 투자할 자원이 있어야 하는데 자산이 없다는 바로 그 이유로 투자하기 위한 자원의 축적은 상대적으로 더 요원하지 않나. 바로 그 투자를 위해 많지 않은 임금의 상당 부분을 저축하고 배를 굶으며 말단의 일들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게 된다고 한들 누가 책임을 저주던가? 그렇다고 중동으로 떠나라고 어르지도 말자. 벌에 쓰일 사람이 없어진다고 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남아있는 우리 주위를 맴돌다 결국 우리를 쏘고 말 것이다.

들어가는 글

저 멀리서 한 남자가 걸어오는데 어딘가 이상하다. 한 쪽 팔을 머리 주변으로 휘휘 내저으며 계속 앞으로 걷는 모양을 보니 제정신인가 싶다. 한참을 그렇게 팔을 내저으며 이쪽으로 걸어오더니 탁! 하고 자기 목을 친다. 아, 벌에 쓰일까봐 팔을 내저다가 결국 쏘인 거구나! 이제야 남자의 이상해보였던 행동이 이해가 된다. 어쨌든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니까...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몰래 슬쩍 웃다가 고개를 돌리는데, 아차! 나도 벌에 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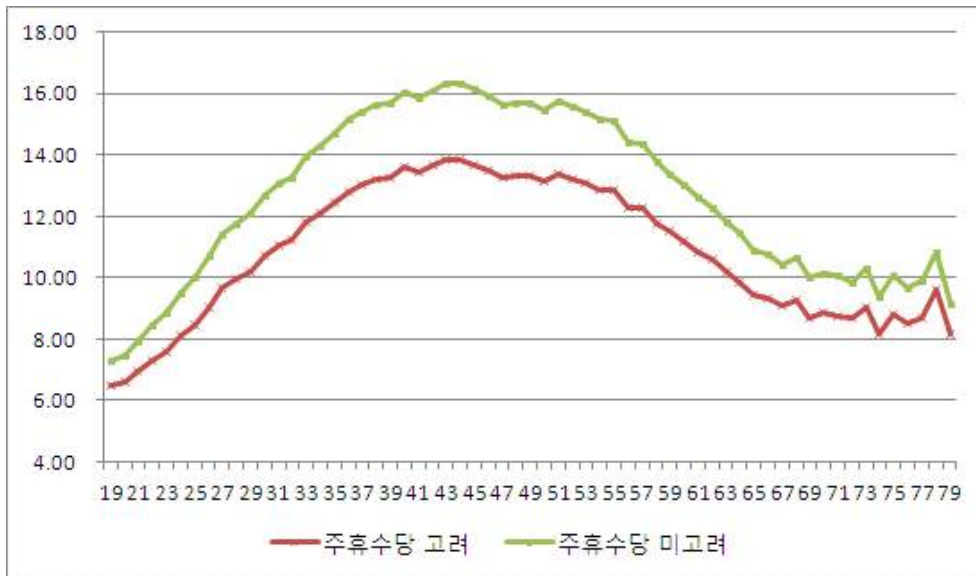
자크 타티 감독의 영화 ‘축제의 날’ 의 한 장면이 지금 한국을 사는 우리의 상황을 비유하기에 더없이 적절하다고 느낀다. 많은 노동자들이 일을 하다 죽고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개인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지켜보았던 우리는, 지난 5월 28일, 자기의 생일 하루 전에 일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열아홉 살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서 각별한 반응을 나타냈다. 그가 열아홉 살이었고 가방에서 컵라면이 나왔기 때문이라고들 하지만 단지 그것이 이유였다면 이처럼 비통해하고 분노할 수 있었을까! 일을 하다 백혈병에 걸리는 이가 있어도, ‘계속 일 하고 싶다’ 고 싸우다 좌절하여 자살을 하는 이가 있어도 한국인들은 참 담담했다. 그러다 우리의 미래를 가두고 거꾸로 수몰되는 배를 생중계로 지켜보게 되었고, 이번에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배가 또 하나의 미래를 뭉개는 걸 보았다. 쏘이는 걸 보고 고개를 돌리다 결국 쏘인 기분이다. 이제 어떤 벌이 그들을 쏘고 우리도 쏘았는지 알아봐야 할 때이다.

지난 5월 28일의 사고를 많은 이들이 청년의 문제로 보았던 까닭은 피해자가 ‘하필 우연히 청년’ 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청년이기에 당한 일’ 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리라. 모기에 잘 물린다고 하면 간혹 혈액형이 어떻게 되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정 혈액형이 모기에 더 잘 물린다는 그들의 생각처럼, 청년은 모순이 집약된 시스템이라는 벌레의 희생양이 되기 쉬운 집단이라고 하면 이해가 될까?

청년,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그림1은 연령별 평균 시간당 정액급여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시간당 정액급여란 월급여를 총 노동시간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할 때 약속한 기본급과 고정적 수당의 합인 정액급여를 소정 노동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것이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며 만근한 노동자에게 하루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하는 주휴수당을 고려하여 계산한 경우와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계산한 경우를 모두 나타냈는데, 평균적으로 주휴수당을 고려하여 제대로 된 시간당 정액급여를 계산하면 15%정도 더 낮게 계산된다.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15% 더 낮게 도출된 시간당 정액급여가 실제에 더 가깝다.¹⁾ 그렇지만 어느 경우이든지 우리 사회의 임금구조의 가장 아래쪽을 받치고 있는 집단은 나이가 어린 청년임을 알 수 있다. 55세를 지나면 이 임금곡선은 급격히 하락하는 듯 보이지만, 고령자 임금이 아무리 낮아도 평균적으로는 청년의 임금이 더 낮다. 65세 이후 평탄구간의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하면, 25세 미만 청년 집단이 한국 임금구조의 가장 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1. 연령별 시간당 정액급여(천 원)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5년 원자료

언뜻 믿기지 않는 결과일지도 모르겠다. 한국은 노인빈곤이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나라라는데 이대로라면 청년의 삶은 그보다 덜 팍팍하지 않다. 청년들에게 당신들의 눈이 높은 게 문제이니 눈을 낮춰 취업문을 두드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얼마나 더 낮추란 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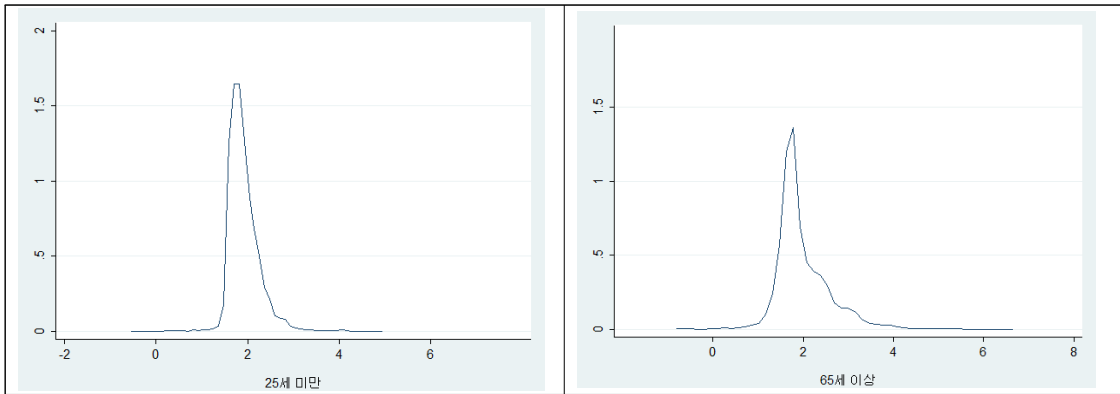
1) 여기에서 '가깝다'고 표현한 이유는 수당의 항목별로 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다른데,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생애주기별 임금구조와 그에 따른 소득-소비패턴

65세 이상 노인에 비해 25세 미만 청년의 평균 임금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그림2에서 보듯이 노인의 임금구조의 폭이 더 넓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노인 중에는 높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청년들은 너나할 것 없이 낮은 수준에 쏠려있다. 낮은 임금을 받게 만드는 청년의 특성이라도 있는 게 아닐까?

그림 2. 청년과 노인의 임금구조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5년 원자료

25세 미만의 청년 노동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일자리와 65세 이상 노인 노동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일자리는 상이하다. 단, 표2의 노인 일자리 지도에서 나타냈듯이 노인 노동자는 단순노무직에 심각하게 편중되어 있고, 청년 노동자는 서비스직, 특히 숙박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서비스직 일자리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표1 참조).²⁾ 그리고 표3의 일자리 임금 지도에서 보듯이 두 직종의 임금이 가장 낮다. 즉, 서비스직이나 단순노무직은 임금구조의 가장 밑을 받치고 있다. 두 일자리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숙련이 적게 필요하므로 다른 노동력으로 쉽게 대체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점이고, 차이점은 최종 서비스의 구매자 입장에서 서비스직이 가시적인 노동이라면 단순노무직은 대개 비가시적이라는 점이라. 게다가 청년의 젊음은 그들이 높은 수준의 숙련을 쌓고 노동시장에 나온 것이 아님을 드러낸다.

임금구조의 가장 아래를 받치고 일하면서도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참가하여 얻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 청년들이 자신의 노동으로부터 인간다운 삶, 생활이 더 나아질 가능성을 기대하지 않게 된다면, ‘무조건 도전하라’, ‘일단 눈을 낮추고 입직하라’ 라는 조언을 한들 소용이 없을 것이다. 차라리 노동시장 바깥에 남는 선택이 합리적일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청년들이 자신의 노동으로 얻는 대가는 단지 생존하는 것 이상이어야 하고, 더 나은 생활을 꿈꾸기에 충분해야 한다. 그러나 혹시 우

2) 여기에서 나타낸 일자리 지도는 18개 산업과 9개 직업을 교차하여 나타냈으므로 총 162개의 일자리에 노동자들이 고르게 분포한다면 각 일자리별 분포는 약 0.62%이어야 한다.

리 사회는 이러한 청년들의 꿈을 이용하고 있기만 하는 것은 아닐까?

표 1. 청년 일자리 지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 자	서비스 종사 자	판매 종사 자	농림 어업 수산 종사 자	기능 및 관련 기능 종사 자	장치 기계 조립 조립 종사 자	단순 노동 종사 자	Total
농림어업	0	0.01	0.02	0	0	0.03	0	0.01	0.03	0.1
광업	0	0	0.01	0	0	0	0	0	0	0.01
제조업	0.02	1.68	2.91	0.05	0.22	0.05	1.58	7.97	1.54	16
전기가스수도	0	0.03	0.06	0	0	0	0.02	0.07	0	0.18
하수폐기물환경	0	0.01	0.04	0	0	0	0	0.02	0.02	0.09
건설업	0.01	0.23	0.5	0	0.05	0	0.94	0.08	0.49	2.3
도소매업	0	0.57	2.43	0.37	9.08	0	0.31	0.38	2.88	16.01
운수업	0	0.07	0.68	0.17	0.05	0	0.02	0.13	0.32	1.45
숙박음식점업	0	0.16	0.4	15.52	4.29	0	0.31	0.1	6.14	26.92
출판영상통신업	0	1.12	0.75	0.07	1.2	0	0.05	0.02	0.35	3.57
금융보험업	0	0.07	1.57	0.03	0.16	0	0	0	0.03	1.86
부동산임대업	0	0.02	0.32	0.07	0.08	0	0	0.02	0.04	0.54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0	1.44	1.58	0.1	0.21	0	0.04	0.12	0.03	3.52
사업서비스업	0	0.42	2.2	0.59	0.45	0.02	0.13	0.35	0.4	4.56
교육서비스업	0	3.74	1.63	0.03	0.02	0	0	0	0.04	5.46
보건사회복지	0	7.71	0.92	0.59	0.02	0.03	0.01	0.02	0.12	9.42
예술스포츠	0	0.51	0.53	2.19	0.45	0.02	0	0	0.21	3.92
협회단체개인서비스업	0	0.27	0.45	2.88	0.09	0	0.21	0.03	0.16	4.09
Total	0.03	18.06	16.99	22.65	16.36	0.14	3.63	9.32	12.82	100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5년 원자료

표 2. 노인 일자리 지도(%)

	관리 자	전문 가 및 관련 종사 자	사무 종사 자	서비스 종사 자	판매 종사 자	농림 어업 수산 종사 자	기능 및 관련 기능 종사 자	장치 기계 조립 조립 종사 자	단순 노동 종사 자	Total
농림어업	0	0.02	0.03	0.01	0	0.15	0.03	0.05	0.28	0.57
광업	0.01	0.01	0.04	0.01	0	0	0.04	0.05	0.02	0.18
제조업	0.51	0.31	2.16	0.2	0.4	0.07	2.11	3.77	2.88	12.41
전기가스수도	0	0	0.01	0	0	0	0	0	0.02	0.05
하수폐기물환경	0.02	0.04	0.1	0	0.02	0.01	0.01	0.16	0.33	0.68
건설업	0.14	0.82	0.86	0	0.13	0.15	3.66	0.22	2.84	8.82
도소매업	0.14	0.71	1.76	0.05	2.66	0.01	0.5	0.18	2.79	8.8
운수업	0.16	0.45	0.99	0.06	0.12	0	0.14	3.25	1.26	6.41
숙박음식점업	0.03	0.02	0.2	2.05	0.04	0.01	0.03	0.03	3.03	5.44
출판영상통신업	0.02	0.16	0.19	0	0.04	0	0.02	0.02	0.16	0.6
금융보험업	0.06	0.02	0.13	0	1.09	0	0	0	0.07	1.38
부동산임대업	0.06	0.2	1.29	0.02	0.02	0	0.38	0.63	19.55	22.15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0.06	1.8	1	0.02	0	0.03	0.14	0.12	0.09	3.27
사업서비스업	0.11	0.27	1.3	1.15	0.15	0.43	0.22	0.48	4.62	8.73
교육서비스업	0.07	1.08	0.32	0.08	0.01	0	0.02	0.42	0.83	2.83
보건사회복지	0.07	1.81	0.42	2.17	0.1	0.02	0.22	0.6	4.91	10.32
예술스포츠	0.03	0.05	0.13	0.14	0.02	0.15	0.05	0.04	0.93	1.54
협회단체개인서비스업	0.03	0.97	1.06	1.88	0.07	0	0.14	0.31	1.36	5.82
Total	1.52	8.76	11.99	7.83	4.86	1.04	7.71	10.31	45.97	100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5년 원자료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표 3. 일자리 임금 지도(전체 평균 대비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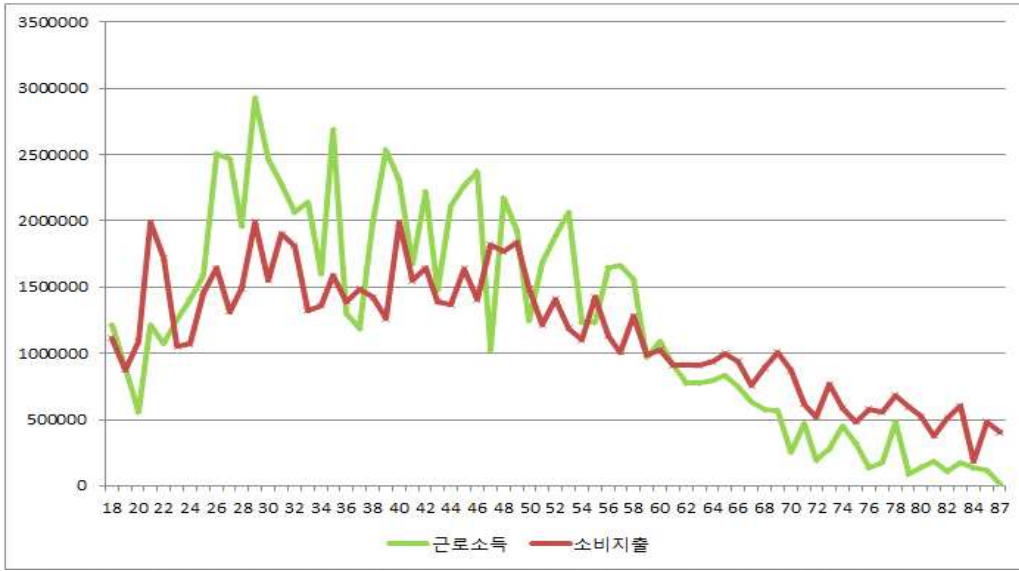
	관리자	전문가및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농어숙종사자	기능및관련기능종사자	장치계조작및조립종사자	단순노동종사자	Total
농림어업	322	123	183	79	91	98	144	73	100	105
광업	990	185	225	83	178		120	120	74	173
제조업	384	174	173	83	133	78	83	94	82	118
전기가스수도	427	276	207	88	78	83	135	154	83	145
하수폐기물환경	313	93	168		124	85	122	107	84	109
건설업	357	97	144	192	127	133	151	110	132	141
도소매업	604	152	188	95	103	78	142	99	78	126
운수업	343	164	137	103	88		107	79	72	100
숙박음식점업	440	82	90	75	59	66	77	97	70	75
출판영상통신업	192	145	149		67		103	92	75	122
금융보험업	262	96	139		162			156	69	158
부동산임대업	346	105	111	53	90	83	77	77	58	63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446	123	117	66	63	80	107	87	99	124
사업서비스업	365	130	134	105	87	115	126	71	71	94
교육서비스업	326	327	108	113	77	73	94	103	84	189
보건사회복지	351	149	91	71	52	78	75	93	64	85
예술스포츠	352	132	97	66	58	65	94	82	66	78
협회단체개인서비스업	412	96	92	92	63		73	75	76	89
Total	388	155	140	83	116	102	121	87	70	100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5년 원자료

그림3은 1인가구 취업자의 연령별 평균 근로소득과 소비지출액인데 연령별 소수의 표본만으로 계산된 자료의 특성상 매끄러운 선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전반적인 경향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근로소득과 소비지출 모두 30대에 들어 높아지고 50대를 지나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눈에 띄는 차이는 소비지출은 근로소득 변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탄하게 유지된다는 점이다. 근로소득은 20대 중후반 이후 급격히 높아지고 50대를 지나며 급격히 감소하지만 소비지출의 변동폭은 훨씬 적다. 따라서 20대 초반까지와 60세 이후에는 이전소득이 없다면 만성 적자 상태에서 생활을 하게 된다.

소득과 소비 패턴의 생애주기적 차이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은 소득곡선이 포물선의 형태가 되리라고 이미 개인들이 예상하기 때문에 청년기 부채를 중장년기에 갚고 남은 돈으로 노년기의 소비를 보충한다고 한다. 청년기의 초과소비 성향은 중장년기의 높은 기대소득에서 비롯한다. 그렇다면, 문자.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었을 때 더 높은 소득을 얻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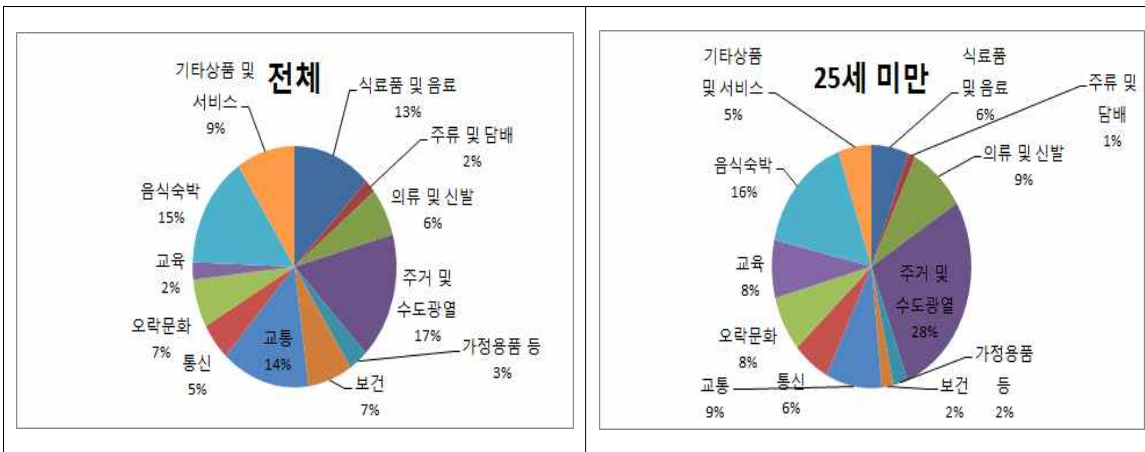
그림 3. 연령별 근로소득과 소비지출(단위: 원)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5년 원자료

청년의 삶, '생활' 은 없고 '생존' 만 있다

그림 4. 소비지출 항목별 비중(%)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5년 원자료

그림4에서 보듯이 25세 미만 청년 노동자들의 소비지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주거 및 수도광열비'로 전체 연령의 17%와 비교할 때 현저히 높은 28% 수준이다. 청년들이 더 좋은 집에 살고자하기 때문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는 매달 높은 월세를 꼬박꼬박 지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자산이 있어야 한다. 청년은 자산이 없기에 같은 경상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거비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청년에게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라고 억박지르지 말자. 투자를 하려면 투자할 자원이 있어야 하는데 자원이 없다는 바로 그 이유로 투자하기 위한 자원의 축적은 상대적으로 더 요원하지 않나. 바로 그 투자를 위해 많지 않은 임금의 상당 부분을 저축하고 배를 곏으며 말단의 일들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게 된다고 한들 누가 책임을 저주던가? 그렇다고 중동으로 떠나라고 어르지도 말자. 별에 쏘일 사람이 없어진다고 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남아있는 우리 주위를 맴돌다 결국 우리를 쏘고 말 것이다. 🐘



2016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6년 7월 25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고용,노동	1/7	노동개혁, 노동자는 없고 기업만 있다	송민정
고용,노동	1/12	노동시장, 유연화보다 소비확대가 우선이다	새사연 노동연구팀
주거	1/15	2016 부동산 시장은 '위험한 균형' 유지할 것	권순형
정치	1/18	야당은 왜 존재하는가?	손우정
농업	1/25	농업의 지속가능성, '쌀' 과 '소득' 에 있다	장경호
주거	1/29	2016년에 대한 기대, 사회주택 활성화의 원년	강세진
복지	2/1	갈등의 복지, 불평등에 '응답하라'	최정은
고용,노동	2/5	지표와 정책으로 본 청년 고용의 현황과 과제	송민정
미디어	2/12	'사이비' 로 불리는 인터넷 매체, 본질은 '여론 통제' 다	김시연
잇:북	2/18	2016 전망보고서	새사연 미디어센터
주거	2/25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역할	강세진
복지	3/14	1인 가구, '전 연령' 의 문제다	최정은
주거	3/18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① : 서울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들여다보기	황서연, 진남영
주거	4/4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② : 영미권 임차인관리협동조합 염탐하기	황서연, 진남영
사회적 경제	4/11	민주주의의 풀뿌리, 마을공론의 형성 과정	강세진
주거	4/15	개발이익 확대로는 청년임대주택은 공급 '불가능'	권순형
청년	4/18	청년은 청춘(靑春)이어야 한다	송민정
주거	4/22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③ :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이 많이 공급되려면?	황서연, 진남영
경제	4/29	한국경제 : 1%를 위한 자본주의	정승일
청년	5/2	소득과 지출로 본 청년의 현재와 미래	최정은
청년	5/19	시골청년 상경분투기	강세진
노동	6/14	여성 임금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미달 및 수혜 현황	송민정
청년	6/20	노동시장 밖의 청년들	김수현
청년	7/22	나는 생활하는가, 생존하는가?	새사연 노동연구팀